

재독한국여성모임 30주년 행사

“우리 활동은 이주민으로서 정체성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헤진 풍물사건, YH사건, 원종노조부정 등 당시 한국의 노동자인권탄압에 분노한 재독여성모임회원들은 독일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며 모금, 서명 운동을 벌였다. 또 김민기의 연극 <공장의 불빛>을 독일어로 무대에 올려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독일사회에 알리는 한편, 풍물패를 만들어 우리 전통문화를 한국인 2세, 독일인들에게 전수하고, 한국어 교육을 벌이는 등 문화운동에도 힘썼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신나치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독일 내 여러 NGO 단체와 사귀기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다. 또 재독 일본여성모임과 공동으로 해마다 한일 역사 세미나를 연다. 조국남 재독여성모임 전 대표는 “우리의 활동은 외국에서 여성 이주민으로서 정체성 찾아가기였다. 우리는 손님 노동자로 독일에 와서 의료분야에 기여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독일의 다문화사회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년 재독한국여성모임은 베를린에서 아시아 여성영화제를 주최해서, 아시아 여성의 자아 찾기를 보여주며 현지에서



빌레펠트】 지난 7,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며, 이주민 단체로 독일에서 우리 문화 전달에 일조했던 재독한국여성모임이 창립 30돌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빌레펠트 토이토부르크 숲 휴양소 나무아프로인대학 우스에서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약 100여명의 회원과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여러 단체가 보내는 축하인사와 재독한국여성모임의 30주년 역사를 평가하는 밤제를 통해 회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을 돌이키며 감회에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인과 독일인으로 구성된 풍물패와 재독 동포들이 준비한 풍물놀이, 한국고전무용 공연은 재독여성모임 창립 30주년의 흥을 더했다.

경함에 행방불명신고를 내거나, 화가난 어떤 회원의 남편은 아예 이불을 집밖에 내다 놓은 에피소드도 있다.

70년대 독일 방직 여성노동자에게

며, 독일 내 여러 NGO 단체와 사귀기도 했다.

현재 재독한국여성모임은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국제단체와 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이 모임은 재독 일본여성모임과 함께 매년 8월 15일이면 주독 일본

여성의 자아 찾기를 보여주며 현지에서 호응을 얻었다. 차세대 회원 최신주(37세)는 “앞으로 다른 이주민 단체, 한인 2세, 독일인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연대하겠다.”며 앞으로 이주민문제를 정점화하며 활동할 것을 밝혔다. **한주연 (한겨레신문 기자)**

이 모임은 1977년 초 경제위기로 독일 병원들이 재독 한인 간호사에 대해 강제해고, 송환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항하는 한인간호사들이 힘을 모아 송환반대운동을 하면서 꾸려졌다. 6, 70년대 독일에 왔던 간호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이 모임은 30년 동안 많은 활동을 펼치며 독일 내 이주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창립 당시 대부분 30대 젊은 간호사였던 회원들은 이제 직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했다. 당시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기정을 꾸리고 있던 회원들은 여가 시간을 이 모임의 활동에 바쳤다. 그래서 모임 때문에 귀가가 늦어지는 부인을 걱정할 독일인 남편이

